

“서로 장기자랑... 젊은이 안부러워요”

속초종합복지관 노인대학 여름캠프 첫선

새 복지프로그램 각광

새로운 불교노년복지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음)이 노인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처음으로 연 것이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 30~31일 1박2일간 복지관 은빛노인대학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양군 공수전에서 여름캠프를 열었다. 영동지방에서 처음 열린 이번 노인캠프는 야외캠프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노인들간의 친목과 소속감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노인 캠프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전국적으로도 거의 실시되지 못했다.

캠프 첫날에는 참여 노인들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조별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정춘 체육대회, 패션쇼, 신파극, 각설이타령, 촛불의식이 진행됐다. '이수일과



◇강원도 양양에서 처음 열린 '노인 캠프'. 결혼하고 처음 야외에서 캠프를 경험했다는 노인들이 많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심순애' 신파극과 각설이 타령, 패션쇼 등 축석에서 이뤄진 장기 자랑을 통해서도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숨은 재주와 유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날은 조원들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레크리에

이션과 가족에 편지쓰기, 샌드위치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장세영 사회복지사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교과 및 복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고해를 정토로 바꾸자”

90년만에 재현된 건봉사 염불만일회

2천여명 참가 “기쁘나 슬프나 염불정진”

모든 의식 한글진행...1만일 결사 선포

금강산이 시작되는 남한의 첫줄기 건봉사 건봉사. 한때 500명이 넘는 수좌들이 정진했던 건봉사에서 5일~7일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장 보광 김재일) 2천여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아마타불을 염송했다.

이번 전국염불만일회는 758년 발장화상이 스님과 신도 1천여명과 더불어 염불만일회를 개설해 기도정진한 것이 효시가 되, 1908년 건봉사 주지 금암의훈스님이 제5차 염불만일회를 연이후 90년만에 이뤄진 것.

“집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웅전과 지장전, 염불당 등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염불만일회가 처음 시작되어 이곳 건봉사에서 천년을 이어왔듯 앞으로 천년, 그리고 영원히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한다”는 김재일법사 결사 발원문 낭독에 두손을 모았다.

건봉사에서 수화한 설산스님(정토사 조실)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손뼉치며 나무 아마타불을 부름시다”며 육환장과 가사를 전달했다. 이어 염불만일회 결사 선포식과 만세 삼창, 그리고 참가자 전원이 연비로써 1만 일동안 아마타염불정진을 부처님께 약속하는 의식이 이뤄지기도 했다.

2박3일간 밤낮없이 진행된 이번

염불만일회에서는 모든 의식을 한글로 진행해 이해로움을 더했다.

이번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에는 보현스님(84), 삼오스님(78), 보광스님(공동대표 동국대학교수), 선진규법사(봉화산 정토수련원장), 안동일현호사(재가회의 공동부회장), 금암의훈스님의 아들 이영선씨(70)등도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고려 공민왕 12년에 남해신도가 아마타부처님께 올렸던 발원문처럼 아마타염불로 육근을 청정히 하고, 고해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세계 정토건설에 한걸음 다가갔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는 앞으로 27년 5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21일 만일염불의 대결사를 회향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opia.com)



◇전국에서 모여 든 2천여명불자들은 '험차게, 신나게, 멋있게' 2박3일 간의 염불정진을 이뤄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구현해 낸 아마타춤 무용단의 공연은 극력정토를 물정으로 그려냈다.

28명이 모여 결성됐다.

연꽃무와 관음무를 선보인 이번 공연에서 한씨는 정토왕생을 표현하는 구름연지를 수인으로 보여주었다.

아미타춤 무용단 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 오영희씨는 “기능적인 춤보다는 신심으로 추는 환희로운 춤으로 회향하기 위해 항상 하심하고 구도 고행하는 자세로 2달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했다.

행사절정 이룬 '아미타 춤' 공연 신심·환희 넘친 관음무공양

“극락정토 서방세계 아마타불이시여, 법문을 내려주소서, 통일영원 이뤄주소서, 극락정토 이도량 다시 꽃피게 하소서!”

6일 오전 신라 경덕왕 17년에 31인이 승천했다는 민통선 안 등 공대에서의 아마타춤 무용단(단장

한순옥)의 헌무는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지난 5월 결성된 아마타춤 무용단은 최승희의 제자 한순옥씨(67)가 안무를 맡아 부처님 가르침을 춤공양으로 구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40대에서 70대의 여성불자

“산은 산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광명선원 노인불자 15명 하안거해제

경북 군위군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동) 광명선원에서 6일 이색적인 하안거 회향법회가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60세가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불자 15명이 하안거 기간동안 선방스님들과 똑같이 화두를 참구하며 용맹정진한 것.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에 동참한 노인불자들은 대부분 20~30여년동안 전국의 선방에서 용맹정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가불자 수행의 사표가 되고 있다.

30여년동안 전국의 선방에서 용맹정진했다는 훈공거사(80)는 “산은 산으로, 바람소리는 바람소리로 모두가 생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선의 세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선원은 80평에 50여명이 정진할 수 있는 시민선방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사찰의 시민선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것의 사찰측의 설명이다.

주지 법동스님은 “팔공산에 재가자들의 전문 참선도량이 운영되기는 신라시대이후 1천년만의 일”이라며 “재가불자들이면 누구나 선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선암사 운영위 구성

태고종 스님들 41명 참여

태고종(원장 인곡)은 10일 선암사에서 전국시도교구 총무원장과 각급 기관장, 선암사 재적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태고종립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선암사 주지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국시도교구 총무원장과 각급 기관장, 선암사 재적스님들 각 20명씩 총 4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원의 구성은 종단측은 총무원에서, 선암사 재적스님측은 지암 전 선암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7인 전영위원을 구성해 20일까지 각각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필선 기자

함양 벽송사에 방화

신축 방장선원 전소

5일 새벽 01시30분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조계종 벽송사(주지 한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신축중인 48평규모의 방장선원이 전소됐다.

사찰측에 따르면 “잠을 자던중 마을 주민들이 불이 났다고 소리쳐 나와보니 선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장선원은 지난해 말 착공해 올 연말 완공예정이었다.

함양경찰서는 신축중인 방장선원 전소사건이 화재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장선원 측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남산담사 안내등 '홈스테이' 운영

경주기행연구원 발족

경주에 가면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라사람들 경주기행연구원(원장 손수협)은 8일 개원식을 갖고 사찰남산 유적지 등의 답사프로그램을 비롯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경주기행연구원은 8월부터 탐과, 불상, 신라의 가람, 감각화 등을 테마로 하는 '나도 문화재 전문가' '청소년 삼국유사 현장체험' 답사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경주기행단은 신라의 노천불상, 월명제 및 충당제, 저자와 함께 하는 역사여행, 민속공연에 장인과

경주에 가면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라사람들 경주기행연구원(원장 손수협)은 8일 개원식을 갖고 사찰남산 유적지 등의 답사프로그램을 비롯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경주기행연구원은 8월부터 탐과, 불상, 신라의 가람, 감각화 등을 테마로 하는 '나도 문화재 전문가' '청소년 삼국유사 현장체험' 답사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경주기행단은 신라의 노천불상, 월명제 및 충당제, 저자와 함께 하는 역사여행, 민속공연에 장인과

김중근 기자

어린이법회 교사대학 생긴다

부불련 '동련불교대학'

교계최초 내달 1일 개원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전문교사대학이 처음으로 개설돼 새싹불자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어린이법회 전문지도교사양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9월 1일 동련불교교사대학을 개원한다.

부산 양정청년회관에서 강의실을 마련한 동련불교교사대학은 1년 학제로 부처님알리기, 불교학개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불교의식을 비롯 찬불가,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아동다루는 기법, 감정통제와 자 전달법 등이 주요 교과목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어린이법회가 운영중인 사찰이나 사무국에서 연수회와 현

장수업 등도 받게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법당 집기등 파손 30대 전과자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불광사·불광대학 법당에 난입해 불단 인등을 훼손한 장모씨(39·남구 대명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일 낮 12시30분 불광사에 들어가 예불을 하고 있는 주지스님에게 시비를 건 뒤 촛대 등을 휘둘러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마를 복용한 전과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사찰이 이교도는 물론 정신질환자나 전과자 등의 난입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교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실직자 자녀보호소 개원

진각종 '선재의 집' 30명 대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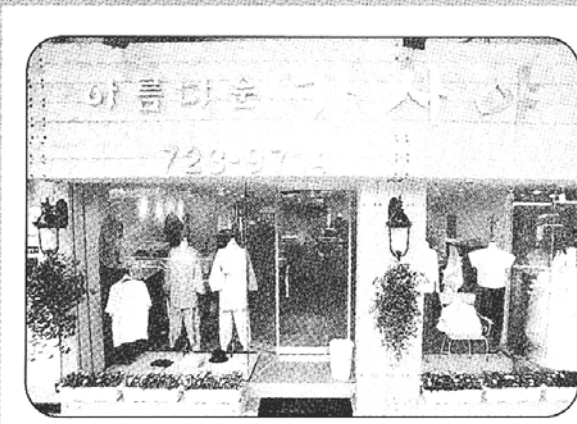
불교계 처음으로 실직자 자녀들을 일시 보호·양육하는 곳이 생긴다. 진각복지회(상임이사 최정)는 실직자 자녀를 위한 아동친화보호소인 선재의 집을 24일 개원한다.

성북구 하월곡동 22-1에 소재한 선재의 집은 실직자들의 자녀 중 3세부터 초등학급 6학년까지의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보호, 양육한다. 일체의 경비는 선재의 집에서 전담하며, 두달에 한번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단

기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또 6개월 이상 입소 아동 중에 취약아동은 인근학교로 전학시켜 교육문제를 전담한다.

선재의 집은 이밖에도 부설기관으로 실직자 가정 상담소를 운영, 각종 실업관련 상담과 자녀상담, 건강상담, 후원자 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실직자 가정상담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옷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가사야 견지동 개점에 즈음하여 모든 스님, 불자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사야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스님, 불자들의 호의와 배려를 잊지않고 보은하고자 전통의 멋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우리옷을 만들어

신심을 둘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실 때라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가사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Tel : (02)723-9714

가사야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보급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안국동 4거리

가사야 성중사

신한은행 제주은행

종각

조계사

평화당 현대 불교 인쇄